생활 속에서 누구의 원망도 탓도 하지 마시고 안으로 굴려 놓으세요

☞ 19면에서 계속

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도 알 것이요, 한마디 한마디 해 놓으신 그 뜻을 우린 지금 현실에 맞추어서 현실의 용어로, 그때에 방편으로 쓰던 것을 현실의 방편으로써, 언어로써 이렇게 대치해서 그것을 서로에게 이득이 되고 공덕이 되게끔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악조건의 그 구정물, 핏물, 고름물 전부 한데 합쳐서, 한데 새겨서 말갛게 만들어서 생수 물을 해서 떠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한 방울의 생수가 아니라면 이건 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처님의 그 뜻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한마디 같이 안 해도 같이 오고 감이 없이 전달이 되고, 미국이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한번 말만 들었다 하면, 그 마음만 내면 서로 전달이 되고, 돌하고도 전달이 되고 돌하고도 말을 하게 되고 일체 만물과 더불어 같이 서로 말을 하고 서로 듣고 서로 공생하고 공체로서 돌아가는 조화를 이루니 그것이 바로 보살이며 부처이며, 그것이 인간이며 그것이 법신이며, 보신이며 화신이며 용왕신이며…. 용왕신이란다고 용왕신 따로 있고 모두가 따로…. (녹음 안됨)

왜, 여러분 배 속에는 청룡 황룡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배 속에도 바로 청룡 황룡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어요. 정맥 동맥이 꿈틀거리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하나 움죽거리는 게 용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삼각원형을 이루고 돌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부처를 자기한테다 두고 자기 몸뚱이는 탑돌이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변소에 들어가면 부처가 없습니까? 법당에 들어가야만 있고, 법당의 형상만 부처고 자기 형상은 보지 못하고…. 그 형상이 자기 형상이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요, 모두가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아마도 그 부처님 마음이 바로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을 부처가 알고 부처가 아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으니 자기는 껄껄 웃을 겁니다. 한번 하늘을 쳐다보고 웃고 한번 땅을 내려다보고 눈물을 흘려서 자비로 이 만물을 다 양식으로 적셔 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반문해 보십시오. 나는 이날까지 살면서 '부처가 된다. 내가 위대하게 돼야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사람은 어디까지나 지옥을 거치지 않는다면 부처를 이룰 수가 없듯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경험 안 해 본 것은 아픈 줄도 몰라. '아! 남이 그렇게 아팠다더라.' 이런 정도지, 그렇게 실감나게 아파 보지 못해. 어디고 한 번씩은 다 들어가서, 물 속에 빠져 보기도 하고, 불 속에 뛰어들어 보기도 하고, 떡 그릇에 엎드러져 보기도 하고, 번연히 알면서도 엎드려져 보는 그러한 패기가 있어야 하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이 공부는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비구 비구니가 따로 없고 여자 남자가 따로 없고 애 어른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적부터 어른입니까? 어른 된 지 며칠이나 되십니까? 또 애 된 지가 며칠이나 됐습니까? 허허허…. 우리가 옮겨 갈 뿐이지, 모습을 바꿔서 옮겨 갈 뿐이지 죽는 게 아니다. 그래서 생사윤회에 걸리지 말라. 본래 온 게 없기 때문에 본래 갈 것도 없어.

> **산이 태산같이 이렇게 있으면 서서히 돌아가고**
> **구덩이가 있으면 구덩이를 채우고 물이 흐르듯이**
> **이렇게 침착하게, 어떠한 악조건이 닥친다 하더라도**
> **안으로 굴리면서 자기 주인공 그 한 점에 모든 걸 맡겨 놓으세요.**

이 모두를, 이렇게 된 상황을 잘 아신다면…, 사량으로만 알고 이론으로만 알아서도 그 속의 근본을 몰라서 자비가 나오질 않아. 스스로 자비가 나와야 할 텐데 스스로 자비가 나오질 않으니까 가상적으로 어떻게 해 보려고 하니 그게 되나? 가다가다가 그냥 그것은 어디로 가 버린 채 금방 자비를 냈건만도 그건 말뿐이었지, 이론뿐이었지, 돌아서면 그냥 도둑놈이야. 여자 남자를 막론하고.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면서 먹을 줄 알아야 하고, 먹으면서 쌀 줄 알아야 되고, 싸면서 잘 줄을 알아야 한다. 이건 끊임없는 길을 말하는 거죠. 자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그 공한 한 점에서 나오는 거 한 점에다 다시 맡겨 놓는 작업을 하는데, 습이 다 떨어져서 녹아 버리니까 그만 푹 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푹 쉰 사람이, 빈 그릇이 된 그 사람이 만약에 이 모든 법을 굴린다면 하나 깔축없이, 걸림 없이 굴릴 거라 이겁니다. 담았다 꺼냈다 담았다 꺼냈다 해도 항상 그릇은 비어 있을 테니까.

그러니 그렇게 담았다 꺼냈다 담았다 꺼냈다 하는 게 아니라 담으면 싸 버려. 담으면 싸고 담으면 싸고. 싸면서 또 자. 이 세 가지의 뜻에 우리가 평생을 배워도 못다 배우는 진리가, 근본이 거기 들었어요. 자고 먹고 싼다 하는 그 세 마디에 다 들어 있다 이거야, 부처님 법이.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진짜로 나는 여기를 믿고 다닙니다. 나는 공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기를 자기가 못 믿어. 자기를 자기가 못 믿고 자기가 자기 부처를 못 믿고, 자기 형상만 보고서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가 못 믿어. 자기 그 공한 빈 그릇을 모르니까. 고정된 게 어딨다고 그게 비지 않았다는 겁니까, 모두가. 자기가 어디 있어? 어떤 사람 만날 때 자기라고 할까? 남편을 만날 때 자기라고 할까, 부모를 만날 때 자기라고 할까, 자식을 만날 때 자기라고 할까. 순간순간 나투면서 화해서 돌아가는데. 그러니 공했다는 건데, 그 공한 데서 그렇게 무수히 나오는 그 자체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니 거기다가 맡겨 놓고, 자기는 거기서 형성된 거니까 그대로 공부하다 보면 자기 마음과 실상이 그대로 사람이라는 게 나와요, 그대로.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랬지마는 "이 32상이 아무리 구족하다 할지라도 32상, 모습으로다가 부처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수보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디다. 요새 노란 뭐, 이런 책을 모두 가져왔습디다. 난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항상 말하는 뜻도 거기에 다 있어. 나는 그거 보지도 않았지만. 마음이 다 각각 있을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의 마음이나 우리들의 마음이나 똑같은데 그만 그 안팎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으로는 부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부처님이 여러분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수보리라는 이름을 지어 놓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는 49년 동안이지만 그분은 한 번도 한 새가 없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49년을 설했느냐, 안 했느냐?" "한 새가 없으십니다." 그랬을 거야,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응?

우리가 진실로써 남을 사랑한다면 물질을 주는 것보다도 내가 한생각을 내서 무주상 보시 해 주는 것이 길을 밝혀 주는 일이요, 암흑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그래서 그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탁발을 하러 나가는데 바리때를 들고 집집마다 돌게끔 돼 있었죠. 가난한 집을 들르다 보니까 보리쌀 끓인 물 한 바리때를 얻었거든. 그걸 마시고 불쌍해서 나무 한 짐을 해다가 줄 양으로 나무를 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산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놈아!" 작대기를 가지고 그냥 아랫도리를 내리갈기면서 하는 소리예요. "한생각에 무주상 보시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무주상 보시를 할 줄은 모르고 이 나무 한 짐, 후르르 태워 버리면 없을 것을 이것도 보시라고 이놈아, 지고 내려왔느냐!" 하는 거거든. 이것도 보시라고, 응?

여러분이 돈 한 푼 두 푼 가져오는 거, 이걸 능사 삼지 마세요. 마음이라면, 마음이라면 아마 몇 억을 갖다가 놓는다 할지라도 마음 한생각보다는 못해. 그래서 물질을 갖다 놓더라도 함이 없이 하는 것은 수미산만큼 공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마음이지 종잇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다못해, 세상의 어느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나는 가져갈 게 없다." 하니까, "여보 당신, 그 말 마오. 가져갈 게 얼마나 많은데 가져갈 게 없소? 당신은 그런 것만 알지 마시오. 나는 지금 내 저녁밥 쌀을 가져가오." 하니까 아, 저녁 먹을 쌀을 가지고 간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당신 미쳤소?" 하니까 "글쎄!" 하더랍니다. 그것이 자기 저녁 먹을 쌀을 가지고 간다는 게 기특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자신이 만만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만만하기 때문에.

그러니 거긴 뭐가 들었을까요? 저녁 굶을 그러한 졸장부는 아니거든. 당당하니까. 저녁 먹을 쌀을 가져가도 당당하니까 가져가는 거야. 이런 당당하고 도도한 마음이, 스스로서 물 흐르듯 흘러 도는 그런 마음이, 그런 자비와 사랑, 무주상이 아니라면 내가 무주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할 건가? 일일이 따진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겠느냐 이거야.

오늘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저 생활을 하시면서도 누구의 원망도 탓도 하지 마시고 항상 안으로 굴려서, 자식이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렇고, 또 잘못 나간다 할지라도 그렇고, 애들이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고 항상 내 마음 안에, 거기서 나오는데 거기다가, 바로 그 공한 거기에다가 모든 걸 맡겨 놓는다면 그 길이 수월하게 밝혀지면서 가환, 우환, 병고, 액난이 다 스스로 녹아져 버려. 한 번 두 번 스님한테다 얘기하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대로 그거 녹아져 버려.

어딜 가나, 자나 깨나, 낮과 밤도 없어. 이 도리에는 꿈도 생시도 없는 것이라. 낮과 밤도 없어. 동 서도 둘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잘 적에도 나를, 길을 인도하는 당신께서, 당신! 바로 이 몸도 당신, 이 실상 자체 마음과 더불어 육신 자체, 모두 내고 들이는 게 당신이야. 그러니 당신이 나를 잘 이끌어서 나의 이 사량적인 분별을, 모든 거를, 길을 밝혀 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냥 관하고, '참 당신은 도대체 내가 알 길이 없으니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관하세요. 화두를 잡고 화두를 쥐고 그러지 말고.

이게 화두라, 이게. 내 공한 몸뚱이가 화두니 그 몸뚱이에서 나오는 거 몸뚱이에다 다시 놓고 믿고 거기에다가 모든 걸 놔요. 그런다면 자기가 억겁을 거쳐서 나온 그 습, 종 문서는 몽탕 타 버릴 테니까. 내 놓을 수 없는 원자력이거든. 자력이 돼서 그냥 닿기만 하면, 갖다 놓기만 하면 타 버리는 거라. 그래서 자기 눈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눈물이 스스로 흐르게 되고, 그 흐르게 되는 눈물은 바로 그 습의 업이 그대로 녹아 버리는 거라. 다 녹는 거라.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6년 5월 20일 일반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부처님 가르침인 '佛法'을 보시하는
법보시 공덕은 보시 공덕 중 으뜸입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